

‘성장 장성’ 황룡강 기반...1천만 관광도시 ‘도약’

물문화관 건립 등 관광 거점화 추진

황룡 베네치아 타운·가족랜드 등 제안

수변경관형 도시계획·민관협치 구성

장성군이 1천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황룡강 관광기반 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추를 꿔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기본 구상의 제목은 ‘황룡강 성장투어 프로젝트’다.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화 ▲생활 관광화 ▲친수 도시화 ▲지속가능화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관광 거점화’를 위해서는 물 문화와 생태 보전 가치를 알리는 ‘황룡강 물문화관’ 건립, 황룡강 축제장과 읍시가지를 잇는 ‘황룡 페스티벌 광장’ 조성, 숙박·상업단지를 조성하는 ‘황룡 베네치아 타운’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장성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제안된 내용을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별 광장’ 조성, 숙박·상업단지를 조성하는 ‘황룡 베네치아 타운’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황미랜드에 네트공원, 미니폴장 등을 조성하는 ‘황미리 가족랜드’ 개발, 황룡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와 야간경관을 갖춘 ‘성장장성 별빛누리’ 조성, 안산둘레길 미디어파사드 설

치, 장성호 유람선 운영 등도 제안됐다.

‘생활 관광화’ 부문에선 장성호에 스마트미디어 계단과 전망타워 엘리베이터, 야간 홀로그램 설치 제안과 황룡강 꽃길을 달리는 ‘황룡열차’ 운행, 장성호-필암서원 구간 투어버스 운영 등이 관심을 끌었다.

‘친수 도시화’ 부문에서는 기업·동호인 대상 ‘황룡워크숍파크’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저장형 ‘황룡 RE100타운’ 건립, 수생식물 서식처 복원 등의 계획이 주를 이뤘다.

황룡강 관광의 ‘지속가능화’를 위해선 수변경관형 도시계획과 경관조성지점(가이드라인) 수립, 민관협치체계(거버넌스)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매년 봄·가을마다 축제가 열리는 황룡강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어지는 대표 명소”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첫걸음 삼아 황룡강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겠으며 ‘1천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김문태 기자

보성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본궤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협의 완료

축구장 확장...2027년 상반기 개장 목표

보성군이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 협의를 최종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3만2천226㎡ 규모의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축구장 2면(천연잔디 1, 인조잔디 1), 풋살장 2면, 주차장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기존의 축구장 3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축구장을 확보하며,

보성군은 명실상부한 전남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또한 해당 부지에 전지훈련센터도 조성돼 있어 체계적인 유소년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전국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었다. 이에 군은 2024년 상반기 부지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해 6월 전남도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대상 부지를 확보했다.

이어 2024년 10월 전남도 농정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안)가 장기간 계류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4

차례의 보완 절차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최종 해제를 이끌었다.

앞으로 보성군은 군의회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 심의를 거쳐 2025년 10월께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주민과 전국 축구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은 군이 전남권은 물론 전국적인 스포츠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규모의 유소년, 성인 축구대회 유치를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상권과 숙박업, 음식점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담양 수북면,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주민 참여 의제 발굴

담양군 수북면은 “최근 수북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과 지역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 일 밝혔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수북면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정철원 담양군수, 이규현 전남도의원,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제안된 사업은 ▲한웃수거함과 농기계 폐유

수거함 설치 ▲주평리 천변 인도 조성 ▲나눔내과-주평리 꽃길 조성 ▲남산리 운동기구와 벤치 설치 ▲마을 앞 표지석 아광 페인트 도색 사업 ▲태양광 패널 활용 마을안내도, 산책로 표지판 설치 ▲남산마을 입구(미산샛터길) 그늘막, 의자 설치 등이다.

참석자들은 각 안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우선 순위와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선미 수북면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며 “제안된 사업들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공영민 군수 “고흥,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

美 스페이스X 민간우주기지 벤치마킹

지리적 여건·산업 인프라 유사성 ‘주목’

고흥군이 미국 스페이스X의 민간우주기지 ‘스타베이스’를 모델 삼아 고흥을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6일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는 고흥과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우주기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며 “스타베이스의 모델을 참고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지역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민간우주복합기지가 자 로켓조립부터 시험, 발사, 연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또한 최근 도시로 승격돼 자치권을 확보하고 3천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 우주산업의 상징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고흥은 민간 기업 중심의 산업기반과 발사체 기술 실증환경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사체기술사업화지원센터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를 통한 재사용발사장 확보 ▲사이언스 캠펙스 조성 ▲민간발사장 및 연소시험시설 조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군수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기술과 민간 우주관광을 실현하며 세계 우주산업의 판도를 바꿨듯, 고흥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테스트 베드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고흥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와 고흥군 그리고 경남도가 상생협력해 ‘K-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우주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



2023 누리호 3차 발사사진 장면.

〈고흥군 제공〉

를 성공시킨 국내 유일의 우주기지로,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전략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현진 기자

곡성군, 간편식 토란잎밥 출시

하나로마트서 판매 예정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사업단은 “최근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인 토란잎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 ‘토란잎밥’ 2종(백미·잡곡)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제품은 ‘2024 곡성토란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성과물로, 외식 컨설팅 전문업체(슈다이아리알)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 이뤄졌다.

‘토란잎밥’은 영양 가득한 토란잎을 잘게 잘라 5.5%가량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며 백미와 잡

곡 2가지로 구성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토란잎밥’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토란을 짓는 사람들’의 차해용 대표는 실제 토란 농사를 지으며 식당 ‘하송’도 운영 중이다.

그는 “매년 수확 후 버려지는 토란잎이 아까워 이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했고 간편식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제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식당에서는 ‘토란통도짜든까스’, ‘토란도란떡볶이’ 등 다양한 토란 메뉴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토란잎밥’은 이달 말부터 곡성축협 하나로마트에서 1인분 기준 3천원에 판매되며 다음 달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품’ 입점도 예정돼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순천,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완료

지봉로 6km구간 개통...지상 송전탑 철거

순천시는 “최근 2022년 2월 착공한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지하 매설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지봉로 도로를 정상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룡면 상삼사거리에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까지 지봉로를 따라 345kV 및 154kV 고압 송전선로 총 6km 구간을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 송전탑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사업

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심 경관 개선과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간 공사로 인해 피로감이 컸음에도, 시민들의 협조로 지하매설구간의 도로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고압의 전력케이블 인입과 지상에 노출된 송전탑 철거 등 전기 부문 공정을 거쳐 2026년 7월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장기 기자

구례군, 5일시장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8억여원 투입...미디어아트 등 설치

구례군은 16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해 ‘구례읍 중심지가치형 도시재생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개월간 총사업비 약 8억200만원을 투입, 보차도혼용도로 도막형 포장, 가로등 설치 등 공사를 완료했다.

5일시장길 일대에 미디어아트, 상징포토존, 벽화입면개선, 디자인벤치, 쉼터, wi-fi 증폭기



등을 조성해 관광객과 군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구례군수는 “앞으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 확충해 보다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